

해방 직후, 국어에 대한 인식 및 교과 형성 과정 연구*

김 혜 정**

<차 례>

- I. 시대 상황과 시기 구분
- II. 본문
 - 1. 해방 직후 국어 및 국문에 대한 재인식
 - 2. 국어 교과 인식 및 형성 과정
- III. 결어
 - * 참고 문헌 / 부록 표

I. 시대 상황과 시기 구분

해방 직후, 교육 분야를 보면 취학 인구의 급증과 교육열의 고조에 비하여, 교육 시설 및 교원이 태부족(박봉배, 1987:512-513)하고, 미군정에 의해 주도된 교육 정책은 일제식 교육을 그대로 계승한 상태로¹⁾ 민족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3-AM1046).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1) 일제시 부일 또는 친일했던 교육 관료들이 미군정과 일치된 입장을 취함으로써, 교육계를 주도했기 때문이다(한성진, 1981). 이들은 외국 유학을 바탕으로 미군정을 지원했고 더욱이 친일했던 교육관계 인사들(俞億兼, 金性洙, 玄相允, 白樂濬)이 재등장하여 교육 체제 형성에 참여함으로써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결국 미군정기 교육은 식민지 잔재의 권위주의적 관료적 성격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교육의 기반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었

교육의 정통성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박혜인, 994:90)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추진된 교육 정책도 곧 이은 한국전쟁으로 체계적이고 계속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교육 움직임이 계획되고 추진되었는데, 민간이 먼저 이를 주도하다가 정부가 수립되던 해(1948.8.15)를 기점으로 점차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 즉, 당시 미군정은 교육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²⁾, 다만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연구 결과물들을 활용³⁾했으며, 국어교육의 연구와 실천은 각종 학술단체(조선어학회, 신흥국어연구회, 朝鮮兒童文普及學會) 등의 주도하에 이뤄지다가 정부 수립 이후 이들이 국어교육 활동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같이, 해방 이후 불과 3여년에 지나지 않지만, 현대적 국어교육의 지표가 되고 이후 교육과정 설계의 좌표가 된, ‘교수요목(教授要目, 1945.9)’의 교과적 의의를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국어과 교수요목은 교과 의식의 맹아(萌芽)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건이다. 이 시기를 일러 교육의 정통성이 단절된 시기라는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국어과는 다른 교과 생성과는 달리 주체적인 자각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국어’ 회복이 다른 학문 분야의 교과화(教科化)보다 훨씬 절실한 필요에 의해 인식되었을 것이다⁴⁾. 정치적 해방과는 별개로, 35년간 사고와 의식의 표현 도구를 억압받았던 언어생활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자국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인식이 배태된 것이다. 이 당시 교수요목에 제시된 教授時間配當 표의 ‘주간교수실수’를 보면⁵⁾, 학년별, 초등은 9, 9, 9, 9, 8, 8이고, 중등은 5, 5, 5, 3,

다(박혜인, 1994:90).

- 2) 최초로 미군정청 학부국은 1945. 9.22에, ‘국민학교 개교, 수업 실수, 6개 학과목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教育方針’을 결정 발표한다.
- 3) 예를 들면, ‘한글 첫걸음(1945.11), 초등 국어교본(1945-1946), 중등 국어교본(1946-1947), 한글교수지침 1집(1945.12), 2집(1946)’은 모두 ‘조선어학회’에서 편찬된 것으로, 발간과 거의 동시에 미군정청 학문국이 발행권을 이양하여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에서 인쇄하고, 보급한 것이다.
- 4) 1945년 9월, 미군정 ‘교육방침’은 國民學校를 개교하고, 그 학과목을 ‘國語, 公民, 地理, 算術, 理科, 音樂’의 6개로 정하였다.

3, 3이며, 중등은 여기에 ‘짓기, 文法, 國文學史(고급3학년)’를 각각 1시간 씩 더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평균 2-3시간을 배정하고 있는 타 교과에 비해 국어 교과가 얼마나 중요한 과목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국어’에 대한 이러한 자각은 교과 영역을 넘어 전체 문화 운동을 이끄는 저력이 되었으며, 비로소 국가를 배경으로 한 ‘國語’ 개념으로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본고는 해방 직후 ‘국어’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국어에 대한 자각(awareness) 측면과 국어 교과 형성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를 위해 그 이전의 국어 인식과 비교하고,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교수요목이나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두 가지 대상은 ‘교수요목’과 ‘한글 전용 공포’이다. 이는 해방 직후부터 1차 교육과정 이전까지(1945-1955)를 성격에 따라 두 시기로 구분해 볼 때⁵⁾, 각 시기를 대표하는 하는 사건이다. 즉 교수요목의 공포는 민간이 중심이 된 국어 운동이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관의 영향을 받아 형식적으로 구성되는 과정

5) 이에 대해서는 박봉배(1980:525) 참조

6)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은 다음에 근거한다.

<시기 구분과 성격>

- | | | |
|-----------------------------|---|--|
| 1. 민간주도기(1945. 9 - 1948. 8) | [| 미군정청에 의한 형식적 체제 정비
민간에 의한 실질적 연구 활동 |
| 2. 체제정비기(1948. 8 - 1955. 7) | [| 교육 정책 및 관제 정비
전시 국어교육활동 |

정부 수립은 정치사이지만, 이를 계기로, 교육 전반이 주체적으로 체제화되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민간주도기(1945-1948)는 미군정청에 의해 교육과정의 전신이라 할 만한 문서들이 마련되고 개교령이 내려지지만, 민간 단체에 의한 국어 운동이 보다 활발한 시기이다. 정부 수립 이후 체제정비기는 국가 주도하에 교육 입안과 각종 교육 정책들이 수립되는 기간으로, 검인정 교과서 발간, ‘교육법(법을 제86호)’ 공포, 교과과정연구위원회와 국어심의위원회 설립 등, 각종 교육법안을 공포하고 시행하면서, 주체적으로 관제화하기 시작한다. 박봉배(1997:2)는 이와 달리, 정부수립 이후(1949년)부터 1차 교육과정 직전까지(1949년~1954년)를 교육과정 전신(前身)으로 보고 이를 1차 교육과정기와 함께 다루고 있다.

을 보여주고, 한글 전용법 공포는 그 당시 국어에 대한 자각이 얼마나 팽배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II. 본 문

1. 해방 직후 국어 및 국문에 대한 재인식

통상 ‘국어’라고 했을 때는 문어에 선행하는 ‘구어(口語)’를 뜻한다. 그러나 구어는 일제 시대를 제외하고는 언어의 역사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점진적인 변천 과정의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표기 수단으로서의 ‘한글’은 근대 이후 새롭게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국문’으로 재인식되면서, (구어를 포함한)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근대 계몽기에 접어들어 한글의 국문 논의가 국어 교과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어’를 구어로서의 한국어와 문어로서의 한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 해방 이전, ‘한글’의 역사적 의미

근대 이후 ‘한글’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띤다. 근대 이전의 ‘한글’은 몇몇 선각자들을 제외하면, 부녀자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평민들의 표기 수단이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 권력과는 거리가 먼 ‘음지’에서 소통된다. 그러던 것이 ‘근대성’의 등장과 함께,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을 상징하는 한자와는 차별화된 문자 수단으로서 한글이 재인식된다. 세계사적 과정과 동일하게, 새로 형성된 시민 계층이 사회의 중심에 등장하면서 ‘한글’의 역할과 지위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 당시 한글이 ‘국문’으로서의 위상을 가졌는지는 분명치 않다⁷⁾.

7) 물론 대한제국 시기, 국가의 공식 문서에 ‘한글’이 실질적으로 등장하면서 ‘국문’ 개

서당 교육으로 대표되던 특권 계층의 교육에서 ‘한자’는 한문의 난해함이 주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으로 인해 소수층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도구였다. 그러던 것이 근대적인 학교 제도가 등장함에 따라 누구나 ‘학교’를 통해 근대적 교양과 전문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글읽기와 쓰기’는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지식(서구 문물에 대한 소개)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 능력이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한글이 효과적이었다. 즉 ‘한글’이라는 표기 수단이 가지는 교수 학습의 용이성 때문에 이것을 학습자가 학습했을 때, 보편적 수준의 일상적 문식성(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다. 이는 한자 문식성에 대한 상대적 장점이다. 이와 같이, 문식성 획득의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은 근대 이후(1890년대 이후) 한글을 교육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근대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한글 교육이 강화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학습의 결과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성경’이 한글로 쉽게 필사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다.

요컨대, 오히려 근대 초기에는 ‘민족’이나 ‘국가’ 개념의 형성에 대한 사회 역사적 자각이 활발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글이 국가관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문이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더욱 아니었다. 단지, 李鳳雲(1897, 國國문文正政理理), 周時經(1910, 國語文法)을 비롯하여 주체적 민족 의식을 가진 몇몇 국어학자들에 의해 사용된 ‘국문(國文)’이나 ‘국어(國語)’라는 표현이 ‘한글’을 지시하는 의미로 쓰였을 뿐이다⁸⁾.

이것을 제외하고는 언론과 출판, 교육의 모든 표기에서는 국한혼용

념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弘範 14條文 - 순국문과 국한혼용문, 순한문으로 작성 반포(개국 503년 12월 12일), 維新詔書(개국 503년 12월 13일) - 국왕의諭旨 - 역시 홍범과 같이, 3종의 문장으로 작성, 教育立國詔書(개국 504년 2월 2일) - 국한문으로 작성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공문서에 대한 문식성을 양반 계층뿐만 아니라 서민층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표기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순한글을 공식어의 하나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나마도 창제 이후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8) 이외, 언론 분야에서는 ‘대한매일신보’를 대표적이라 할 만만데, 1904년판(창간 당시)과, 1907년판 이후부터는 한글판을 별도로 발간하였다.

체를 쓰고 있다. 최초의 학부(學部) 발간, ‘국정(國定)’ 개념의 국어 교과서인 ‘國民小學讀本(1895.7)’부터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대부분이 국한혼용체, 그것도 한주국종체(漢主國從體), 혹은 한문에 한글 현토(懸吐)를 단 형태가 대부분이다⁹⁾. 또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재에 한자(漢字) 사용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한자가 난이도와 수준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¹⁰⁾, 한자와 한글은 각기 다른 의미, 즉 한글은 저학년이, 한자 및 한문은 고학년이 배워야 할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¹¹⁾. 즉 근대 계몽기에는 국문에 대한 의미역이 합의되지 않고, 학자들마다 달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한글’은 한자의 보조적 표현 수단이면서 학문의 세계에 입문한 초년생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지는 선수(先修) 학습용 문자로 인식된다. 또한 ‘조선어’는 ‘조선인’을 ‘활용’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로서 이용되었다. 즉 학교 교육에서는 일제(日帝)식 지식(역사관)을 주입하도록 만들어진 교재를 학습하기 위해, 또 일어를 학습하기 위한 메타적 언어로서, ‘조선어’가 용이했기 때문이다¹²⁾.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시기에는 국권 상실로 인한 반발작용으로, ‘國語’에 대한 자각이 강하게 일어나고, ‘조선어학회’의 연구활동이 ‘한글’ 연구로 일관된 것처럼, 문자로서의 ‘한글’이 ‘국문’, 나아가 ‘국어’를 대표하는 개념으로까지 부각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 문헌 자료를 보면,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한자 사용이 태반이

9) 부록1 참조

10) 참고(2002:283-322) 참조

11) 개화기 당시 선교사들에 의해 한글 전용 표기된 ‘국어 교재’ 중 남아있는 자료로, 초등교재로 쓰인 책은, 初等小學(大韓國民教育會, 1906) 8권 중에 3권까지, 初等女學讀本(李源兢, 1908), 蒙學必讀(崔在學勞, 년도불명), 動夜學讀本(俞吉濬, 1908-순한글체에 가까운 혼용체), 樵牧必知(鄭崙秀, 1908), 너즈독본(張志淵, 1908), 婦幼讀習(姜華錫, 1908), 국문초학(주시경, 1908), 國語習字捷徑, 韓承坤, 1908)과 같이, 순한글 표기로 된 교재도 있지만, 중등이상의 교재나 사범학교 교재 중에는 ‘國語文法(周時經, 1910)’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상의 교재는 모두 개인 또는 민간이 편찬한 것이다.

12) 참고(2003a:289-290) 참조

어서, ‘한글’이 ‘한자’에 비해 우월적 위치를 점했다거나 ‘한글’ 단독으로, ‘국문’이라는 국가관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대변될 수는 없었다.

요컨대, 해방 이전까지는 ‘국어(國語)’나 ‘국자(國字)’에 대해 명백하게 개념이 규정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국한혼용체’ 형태를 의미하는 것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2) ‘한글 전용’과 국어 인식에 대한 변화

해방 직후, 언론과 출판 및 교육계에서 느끼는 ‘해방감’은 다른 분야에 비할 바가 아니었을 것이다. 국어의 위상은 급변하게 되는데, 일개 외국어로 취급되던 ‘朝鮮語’ 명칭이 국가적 공식어로서의 ‘국어’로 바뀌는 것은 그 단편적 예다.

이로써 개국 이후 ‘國文’으로 지칭되던 우리글이 1907년 ‘普通學敎令施行規則’의 제 8조에서 ‘諺文’으로 가치 절하되고, 1938년 3차 조선교육령의 ‘폐과’에 대한 조항 이후, 공식적인 언어 활동의 표면에서 사라졌던 ‘朝鮮語(조선문자)’가 1947년 7월, 공식 용어로 제정¹³⁾되며, 1948년 10월, 정부가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공포¹⁴⁾하면서 1950년 한자 혼용을 인정할 때까지 한글이 국문으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적 변화를 거치면서 국어 의식도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 그 내연적 의미는 보다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즉 한문이 아닌 한글만으로 국문을 설정하려고 했다는 점, 한글에 대한 주체적 자각이 국어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어는 일상 써오던 ‘말’만이 아니라, 순 우리말과 순 우리 문자, 즉 우리 고유의 표기 수단에 대한 재발견과 자각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 당시 국어에 대한 연구가 표기 수단인 문자에 대한

13) 이는 우리말이 일어의 자리를 회복했다는 뜻이지, 문자 표기의 공식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1949年 6월에 美軍政廳이 南朝鮮過渡政府로 바꾸어서 비로소 公用語가 朝鮮語, 즉 우리말로 된 것이다(김민수, 1984).

14)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법률 제6호).

연구와 별개로 이뤄지지 않았고, 국문으로서의 한글 교육을 국가 의식(독립 쟁취, 부국강병)과 관련짓는 것만 보더라도 ‘한글’이 국어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어’라는 개념 설정을 위해서는 고유성, 주체성과 같은 준거들이 중요한 관건이 되었던 것이다. 한글에 대한 자각이 국어에 대한 개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글은 국가 의식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애국의 수단으로써, 또 문맹퇴치를 위한 수단으로써 이뤄진 국문 연구나 한글 보급은 일제에 대한 소극적 저항의 의미를 지닌다. 애국하는 길로써 ‘국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첫 기술은 리봉운(1897)의 ‘국문정리’의 ‘서문’¹⁵⁾에서 보인다. 여기에서 리봉운은 국문연구의 목적이 ‘국부민강’에 있으며, 그 효능이 ‘독립, 권리와 자주, 사무에 요긴한 것’으로 역할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1928년 2월 조선어연구회의 ‘한글’ 창간호의 ‘發刊辭’¹⁶⁾에서도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1931년 12월 발족한 朝鮮語學硏究會의 ‘趣旨書’¹⁷⁾에서는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이 연구되어야 함을 주

15) 서문

나라 위하기는 려향의 선비나 쥬정의 공경이냐 충심은 호궤지기로 진정을 말하느니 대며 각국 사람은 본국 글을 숭상하야 학교를 설립하고 학습하야 국경과 민사를 못할 일이 업시하야 국부 민강 하것만는 조선 사람은 늑의 나라 글만 숭상하고 본국 글은 아조 리치를 알지 못하니 절통호지라 (중략) 또 주쥬 독립의 리치로 말하야도 늑의 나라 글만 위쥬 할거시 아니오 (중략) 문명의 테일 요긴호거슨 국문 이드나 반절 리치를 알 사람이 적기로 리치를 궁구하야 언문 옥편을 만든드 쥬야에 발호하야 이와 국문을 안다호는 사람도 리치와 즈음과 청탁과 고더를 분명히 알아 호궤문게 호고 동몽도 교육호면 우리 나라 글이 쥬연 붉을거시오 독립 권리와 주쥬 사무에 테일 요긴호거시니 여러 군즈는 김히 스궤강 호시기를 바라옵...

16) 침 내는 말

‘한글’이 나왔다. ‘한글’이 나왔다. 訓民正音의 아들로 나왔으며 二千 三百萬 民衆의 동무로 나왔다. 무엇하러 나왔느냐 조선말이란 曠野의 荒蕪를 開拓하며 조선글이란 寶器의 木은 녹을 벗기며 朝鮮文學의 正路가 되며 朝鮮文化의 원동력이 되어 조선이란 큰집의 터전을 닦으며 주초를 놓기 爲하야 丙寅이듬해 丁卯年 劈頭에 나왔다. (중략) 朝鮮文化樹의 枝葉은 科學, 宗教, 藝術, 政治, 經濟, 道德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 根本을 依託할 土臺는 말과 글이다. **잘** **갈** **고** 닦아서 朝鮮文化樹와 永遠한 發達의 原動力이 되고자 하니 그 理想이 늘 략지 아니한가. (하략), (진하게 표시는 필자주)

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에 의해 주도되어 왔던 한글 보급 및 국어 연구가 일제의 탄압과 감시를 의식한 지하 활동이자, 독립을 위한 애국의 방편으로써 강조된 것이라면, 해방 직후는 그러한 장애와 목표가 사라진 상태에서 ‘한글’이 순수하게 국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전면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과 학문 연구의 수단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해방 직후 한글에 대해 ‘문맹 퇴치’ 일색의 의미 부여는 재고되어야 하며, 한글에 대한 자각은 우리말을 빼앗긴 상황에서,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의 회복, 즉 국가관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후 광복이라는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한글에 대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관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표면화된다. 정부 수립 이후(1948) ‘한글 전용’의 공포는 이러한 의식의 발로이다. 이로써 비록 역사적으로는 짧은 시기(1950년까지)에 지나지 않지만, ‘한글’이 대외적 문자로서 독자적 대표성을 띠게 되며, ‘한자’ 및 ‘어어’에 우월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¹⁸⁾. 해방 이후 얼마동안은 ‘국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한자나 한문’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한글 전용’ 법령은 해방 이후, 우리 것에 대한 자각과 열망이 앞선 나머지 현실적인 언어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강제했다는 점에서 오래 가지 못했다¹⁹⁾. 우리의 의식과 문화생활,

17) 趣旨書

(상략) 中等程度 以上の 學敎에서 그 學說을 敎授한 다가 이미 二十年에 갓가 왔는데 多數한 修學者 중에 그 學說의 理論과 記寫法을 正確히 曉解하는 사람이 무릇 몇이나 되는가. 相當한 文識을 가진 紳士와 淑女가 猝然히 文盲이 되어 씌은 枯捨하고 最高級의 學識이 있는 人士로서도 오히려 그 記寫法을 曉解하는 사람이 曉星보다도 稀少하다. 허물며 一般民衆에 이서서이라 어찌하여서 世宗의 親序하심과 五百年間 實驗함에 依하여 가장 쉬우며 가장 便히기로 特長이 되어 잇든 우리의 正音의 記寫法이 이러트시로 至難한 글이갓는가 이것은 그 學說의 內容에 多大한 缺陷이 包含되야 이는 證左일 것이다. (하략)

18) 이 당시 최현배, 주시경, 장지영 등은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연구하고 이를 집필 하였다.

19) 1949년 11월, 25명의 국회의원은 “국민학교 졸업생들이 신문·잡지를 읽을 수 없으니, 국민학교 교과서에 간이 한자를 쓰고, 신문·잡지에는 한자를 제한하여 쓰도록 하자.”는 요지의 ‘한자 사용 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이후 1950년 5월 국무회의에서는 한자 혼용에 대한 토의를 거쳐 “각의에 따라 한자를 섞어쓰기로

그 중에서도 언어 표현과 이해 활동은 여전히 한자 섞어쓰기(혼용)가 중요한 방식이었다. 당시 미군정은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교과서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발표하면서²⁰⁾ 이것은 교과서 제작에서도 논란거리가 되었다. ‘한글 전용 방침은 학생들을 눈먼 장님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비판(오천석:1975b)’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오랜 전통 문화가 한자에 의해 축적되었음을 볼 때, 미군정의 한글 정책은 급진적이었으며, ‘미래 세대가 전통 문화를 한글을 통해 접근할 수 없는 한 미래 세대의 교육은 한국 전통 문화와 매우 급격하게 단절될(김천기(1997:64) 위협을 초래할 정책이었다. 당시 미군정의 교육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 사조를 받아들여 ‘사회 동질성 유지’를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으며²¹⁾ 교과서 제작 기준에서도 이러한 ‘현대적 관점²²⁾’을 적용했다. 그렇다면 미군정이 보기에 ‘한글’은 봉건적 구시대의 표기수단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소재(素材)이며, 동시에 ‘사회 동질성’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한글’ 전용이 국어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은 언어가 사고의 도구라는 본질적인 명제와 관련 깊다.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인해 일어를 강제로 써야 했던 사람들은 점차 사고까지도 일어로 하게 된다. 우리말과 일본어는 문법이 비슷해서 일본어의 유입이 쉬웠을 테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선진 문물이 대

하라.”는 통첩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문교부는 조사·검토한 후 1951년 9월, 4학년 이상의 교과서에 ‘교육 한자 1,000자’를 도립 속에 넣어 교사들의 교수에만 이용되도록 하였다.

20) Dept. of Education : Reports & administrative records. Record(1946-1948), 김천기(1997:64)에서 재인용.

21) 김천기(1997)는 미군정의 교육 정책이 또 하나의 식민 사관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의 주체적인 개혁 의지를 무력하게 하는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 “한편 중등학교 커리큘럼의 필수과목인 사회, 국어, 영어’는 사회동질성 유지라는 차원에서 설정되었다. 이들 과목의 목표는 공통의 사회적 가치, 규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중략) 그 당시 학무국 차장이었던 오천석은 사회과는 듀이나 러그(Harold Rugg)와 같은 미국 진보주의 교육자들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천기, 1997:61).”

22) Dept. of Education : Reports & administrative records. 김천기, 위의책, p.63

부분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와 함께 유입되는 일본어를 막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은 점점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은 개화한 지식인들에게는 가장 큰 괴로움이었을 것이다. 다음 상황은 김동인의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김동인은 머리 속에서 먼저 일본말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번역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썼다.

더욱이 과거에 혼자서 머리 속으로 구상하던 소설들은 모두 일본말로 상상하던 것이라, 조선말로 글을 쓰려고 막상 책상에 대하니 앞이 딱 막힌다.
 ‘가정교사 강엘리자벳은 가리킴을 끝내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이것이 나의 처녀작 <약한자의 슬픔>의 첫머리인데 거기 계속되는 둘째 구에서부터 벌써 막혀버렸다.

- 김동인 <병상만록>, 수필, 매일신보, 1931.6.7. -

일제 강점기 지식인들이 일본어로 글을 썼다는 것은 일본식으로 사고했다는 뜻이다. 이는 언어가 사고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사고의 수단으로 사용된 특정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꾼다는 것은 한 개인의 단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 정책이나 국민적 여론으로 형성된 분위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구어와 문어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몰랐던 사람에게서보다도, 일본 문자를 쓰고 읽을 줄 알며, 이를 통해 사고했던 사람에게서는 한글을 쓴다는 단순한 표기 수단의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면에 있는 ‘국어’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한글 전용(‘미군정 명령 6호’)은 국어 의식의 정책적 발현이라고 할 만하다.

2. 국어 교과 인식 및 교과 형성 과정

- 1) 교과 인식의 발아기 : 敎則大綱에서 敎授要目으로의 체계화
 해방 직후, 국어 혹은 국문에 대한 인식이 국어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

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교과 인식의 초기 단계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의 최초 문서는 小學校教則大綱(1895년)이다. 그 가운데, 전문의 15조가 교육과정에 해당하며²³⁾, 국어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의 제3조와 제4조이다.

▶ 第三條 讀書와 作文은 近으로 由하여 遠에 及하며 簡으로 由하여 繁에 就하는 方法에 依하고 몬져 普通의 言語와 日常須知의 文字, 文句 文法의 讀方과 意義를 知케 하고 適當한 언어와 文句를 用하여 正確히 思想을 表彰하는 能을 養하고 兼하여 智德을 啓發함을 요지로 함

▶ 尋常科에는 近易適切한 事物에 就하며 平易하게 談話하고 其 言語를 練習하여 國文의 讀法 書法 綴法을 知케 하고 次第로 國文의 短文과 近易한 漢文交하는 文을 授하고 漸進하기를 從하여 讀書 作文의 教授 時間을 分別하느니 讀書는 國文과 近易한 漢文 交하는 文으로 授하고 作文은 國文과 近易한 漢文交하는 文과 日用書類 등을 授함이 可함

▶ 高等科에는 讀書는 漢字交文을 授하고 作文은 漢字交文과 日用書類 등을 授함이 可함 讀書와 作文을 授하는 時에는 單語 短句 短文 등을 書取케 하고 或 改作하여 國文使用法과 語句의 用法에 熟하게 함이 可함

▷ 讀本의 文法은 平易케 하여 普通 國文의 模範됨을 要하는 故로 兒童이 理會하기 易하여 其 心情을 快活純正케 함을 採함이 可하고 亦도 그 事項은 修身 地理 歷史 理科 其他 日用生活에 必要하고 教授에 趣味를 添함이 可함

▷ 作文은 讀書와 其他 教科目에 授 한 事項과 兒童의 日常見聞한 事項

23) 제1조가 總則, 제2조가 修身, 제3조가 ‘讀書, 作文’, 제4조가 ‘習字’, 제5조가 ‘算術’, 제6조가 ‘地理’, 제7조가 歷史, 제8조가 理科, 제9조가 圖畫, 제10조가 體操, 제11조가 裁縫, 제12조가 外國語이다. 제13조는 지방별 구체적인 재편성 요령이 들어 있고, 14조는 학교별 편성, 제 15조는 성적 관리, 졸업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 ‘재방(수의과목)’이 독립 교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재미있는 부분이다. 서양 복식에 대한 교과적 이해가 근대화의 중요한 요건이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이전의 학교령은 소학교령(1895-1905)과 보통학교령(1906-1910)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둘은 교과 편제나 교육 내용 기술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나, 단 외국어 중 하나로서 ‘一科 또는 數科를 加할 수’ 있는 정도였던 일어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고, 점차 시수가 늘어나면서 ‘국어’를 위협해 간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는 소학교령 규칙만 인용한다.

及處世에 必要한 事項을 記述하되 行文이 平易하고 旨趣가 明瞭케 함을 要함

▷ 言語는 他教科目的 教授에도 항상 主意해야 練習케 함을 要함

▶ 第四條 習字는 普通文字의 書法을 知케 하고 運筆에 習熟케 함을 要함

▶ 尋常科에는 國文과 近易한 漢字를 交한 短句와 通常의 人名 物名 地名 등의 日用文字及 日用書類를 習케 함이 可함

▶ 高等科에는 前項의 事項을 擴大하며 日常適切한 文字를 增加하고 亦도 日用書類를 習케 함이 可함. 漢字의 書體는 尋常科에는 楷書或行書로 하고 高等科에는 楷書 行書 草書로 함. 習字를 授는 時에는 別로히 姿勢를 整하고 執筆과 運筆을 正케 해야 字行은 整正히 하며 運筆은 必히 速케 함을 要함. 他教科目的 教授에 文字를 書는 時에도 또한 그 字形과 字行을 正케 함을 要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小學校教則大綱’에는 학년 구분이나 학년별 내용 배당이 없고²⁴⁾, 각 교과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로 기술되어 있다. 이 문건을 통해 당시 국어의 교과적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첫째, 교과목으로 ‘國語’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讀書, 作文, 習字’는 외관상 각 항목으로 기술된 별개의 교과 혹은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교과는 학교 교육을 전제한 개념이다. 즉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지식과 기술 등을 학문과 문화의 영역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 교과이다. 따라서 교과 설정은 학문 내용에 대한 선택이 전제되기에 교과를 보면, 그 사회가 지양하는 교육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소학교령기의 교칙대강에 설정된 ‘독서·작문, 습자’는 ‘국어’의 하위 과목이 아니라, 각기 독립된 언어활동이 하나의 교과명이 된 경우이다.

24) 당시 소학교 학제는 5년제로, 심상과와 고등과의 학년 구분이 모호하다. 뿐만 아니라, 박봉배(1897)를 참고하면, 이 당시에는 정식 학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력 수준에 따라 고등과나 중학교로 바로 입학이 가능하다. 즉 학제의 호환이 자유로웠다. 이는 교육 제도가 그만큼 비체계적이었음을 뜻한다.

국어과 외의 다른 교과와 비교해 볼 때, 그 교육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활동 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당시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근대적인 문식성을 획득하여 근대적 교양과 지식의 생산과 수용에 능숙해지는 것이라면, 입문기인 초등 교육에서 ‘읽고, 쓰고, 글자를 익히는 것’이 중요한 언어 활동으로 간주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교과는 ‘분과주의(分科主義)’로 편성되었다. 이때 사용된 교과서는 대부분 서구 문물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글로 이뤄져 있는데, 이를 단순히 읽음[讀本]으로써 상용 한자와 한글에 대한 기초적 문식성을 익히고, 새로운 텍스트 유형의 글을 접할 수 있는 정도로 교과가 구성되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과는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체계적인 위계를 설정하고 있다. 각 항목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3조에서 독서와 작문의 교수-학습 원리(‘近으로 由하여 遠에 就함’과 ‘間으로 由하여 繁에 就함’)를 제시하고, 각 언어 사용 영역별 목표로, 독서에는 ‘일상적 수준의 언어 단위(文字, 文句, 文法)들을 읽는 방법(讀方)과 그 의미 해석(意義)’을, 그리고 작문에는 ‘단어와 문구를 이용하여 정확한 표현력 배양(適當함 언어와 文句를 用호야 正確히 思想을 表彰호는 能)’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언어 활동에 대한 교육과 함께, ‘덕육(智德 啓發)’이라는 인성 교육도 강조되었다. 습자에서는 문자 쓰기의 기능화에 보다 주력한다. 여기서 ‘문자’는 한글과 한자 쓰기를 모두 중시하고 있는데, 특히 한자의 서체, 태도 및 습자 기법(‘자행은 整正하며, 윤필은 힘써 速케 함’)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초적인 언어 능력으로서 읽기와 쓰기가 중시된다.

셋째, 이들 교과 내용에는 단순 기능의 숙달뿐만 아니라, 학습 방법의 학습, 텍스트 유형에 따른 실제 연습, 교수-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고려와 같은 구체적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독서에서 ‘文字 文句 文法의 독서 方法’과 독서와 작문을 통하여 ‘國文 使用法’을 익힐 것과 ‘다양한 日用書類’, 즉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장르를 연습하여 교수할 것을 반복하고 있으며, ‘教授에 趣味를 添함’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지

식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개념적 지식을 사용하는 절차적 지식을 익히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점과 1895년에 공포된 교칙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근대적이라 할 만하다.

넷째, 나름대로 심상과와 고등과로 구분하여 수준별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구분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과 내용을 하나의 유의미한 행위들로 요소화하고, 이들을 두 개 정도의 학력 수준으로 구분함으로써 조직 및 배열의 체계성으로 엿볼 수 있다. 예컨대, 독해에서는 평이한 담화, 언어연습, 평이한 국한문 독해에서 國漢交用文의 수준으로 나아가고, 습자는 近易한 한자와 인명 지명, 물명 등의 일용문자 수준에서 문자를 증가하고 日用書類를 익히게 하는 것으로 점차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다섯째, 독서와 작문 내용에서 다룰 내용 제재를 언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修身, 地理, 歷史, 理科, 其他 日常生活에 必要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교과서 내용을 보면²⁵⁾, 유교 경전을 일부 발췌 혹은 요약 제시한 小學讀本(1895.8)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과서가 두 가지 주제로 대별되는 제재를 싣고 있다. 그것은 ‘근대적 문물(서양의 과학과 사회) 소개와 자주 의식 함양’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위의 조항에서 제기한 것과 관련된다. 이 당시 교과서가 교칙 내용을 반영할

25) 이에 대해서는 줄고(2003a:283-322) 참조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면, 국민소학독본(1987)의 첫 단원의 내용이 ‘大朝鮮國’으로 시작하여 ‘廣知識과 濶場, ‘我家, ‘世宗大王記事’의 순으로 이어지는 것만 봐도 민족의 자긍심 고취, 자주독립이라는 내용 목표를 염두하고 단원을 구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학독본’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외국 문명과 외국 인물의 소개나 과학과 근대적 상식에 속하는 선진 학문 이론들을 간단히 소개하는 단원이 많이 배정됨으로써 내용이 다채롭고 흥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倫頓(런던:필자주), 支那國, 짜일드, 亞美利加(미국:필자주)의 용강과갈:필자주), 亞美利加獨立, 合衆國(미국:필자주), 成吉思汗(징기스칸:필자주)’은 외국의 문명과 역사 및 위인의 일생을 소개하는 단원인데 반해, ‘植物變化, 時計, 風, 元素, 食物天性’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이념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순수하게 과학을 설명하고 있는 단원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읽더라도 흥미있고 신선한 인상을 주며, 서술 방식도 다른 단원에 비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음과 느낄 수 있다. 단원 기술 방식은 대개 객관적인 설명문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면적인 주제는 외국 문물의 소개나 우리의 위인 전기(傳記)를 소개함으로써 근대적 자주독립의 성취라는 교육의 상위적 의의에 도달하기 위한 제재들로 구성되었다.

만큼 교과 의식이 있었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선별된 제재들은, 수신, 역사, 지리, 과학, 생활적 교훈을 담고 있는 짧은 신변잡기 등이고, 이를 통해 근대성과 자주성의 함양하는 교훈적인 내용들로 선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소학교령 4년 뒤에 中學校官制(1899.4)가 공포되는데, 이는 소학교령보다 보다 개괄적으로 약술되어 있다. 이후 普通學敎令(1906.8)²⁶⁾의 ‘普通學敎令施行規則’(1906.9)은 위의 소학교 규정과 내용 및 체계에서 비슷한 수준이다. 단지 다른 점은 ‘讀書·作文(3조), 習字(4조)’의 교과목명이 ‘國語’로 통합되고, ‘독서, 작문, 습자’의 활동 속에서 제재로만 다루어진 ‘漢文’이 하나의 단일 교과목으로 독립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과로서의 ‘국어’의 내용이 그 이전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대의 국어 교과(독서·작문, 습자)는 기초적 문식성 획득이 목표였는데, ‘習字’의 교육 내용(抄楷行書 습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문식성의 대상은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즉 소학교령 당시, 국어에 대한 개념은 우리말의 표기 수단으로서 한글과 한자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다가 보통학교령의 시행규칙에서는 ‘국어’ 교과의 내용에서 ‘한자’가 분리된다. 이는 한글을 중심으로 한 ‘국어’ 개념이 교과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어활동이 아닌, 언어명을 외국어 과목과 동등하게 교과명으로 설정한 것, 그리고 그 교과의 내용 영역으로 ‘독서, 작문, 습자’와 같은 언어활동들을 하위에 포괄한 것 등은 소학교령의 교칙대강에 비해 다소 발전된 양상이나, 교육과정의 구성면에서는 대등소이하며, 교육 내용의 상세화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제2차 조선교육령의 ‘朝鮮語及漢文’ 규정²⁷⁾을 살펴보자

26) 이때부터 일제의 정치적·외교적 압박이 본격화된다. 교육에서도 소학교제를 일제와 같은 보통학교제로 바꾸면서 4년제로 축소한 것 등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27) 高等普通學校規程
第二章 學科 및 程度
第十條 …(앞의 부분은 동일하므로 생략)… 國語及漢文은 現代의 國文을 주로 하여

도, 조선어과의 내용은 일본어 교육과정에 비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기술되었다. 일제에 있어서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朝鮮語’ 교육은 유명무실한 제2외국어 정도로만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위의 소학교령을 근대적 교육과정의 최초 문서로 보고, 이를 해방 이후의 교수 요목과 비교하는 준거로 삼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 직후 한글이 강조된 것은 단순한 문맹 퇴치를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다²⁸⁾. ‘한글’은 국어 혹은 국자로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된다.

2) 교과 내용의 유무형적 변화 : 경험 중심 교육의 도입과 한글 문식성 교육

1946년 9월 군정청 학무국에서 공포한 ‘교수요목(course of study)²⁹⁾’은 우리 교육사상 최초로 성문화된 교육과정으로, 전통적인 교과주의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경험주의에 기반을 두었다³⁰⁾. 다음은 당시 교수요목이 구성되기까지의 회합 과정을 보여준다.

講讀하게 하고 더 나아가 近古의 國文에 미치게 하며, 平易한 漢文을 강독하게 하며, 簡易하고 實用에 맞는 國文을 짓게 하고 國語文法의 大要 및 習字를 가르쳐야 한다.

第十一條 … 朝鮮語及漢文은 普通의 朝鮮文과 平易한 漢文을 講讀하게 하고, 實用簡易에 朝鮮文을 짓게 하며, 朝鮮語文法의 大要를 가르쳐야 한다. (1922년, 朝鮮總督府令 第16號, 高等普通學校規程, 第1章, ‘設立 및 廢止’ 항. 원문은 신주백 편(2002), 조선총독부 교육정책사, 자료집1 참고, 번역문은 박봉배(1987:282-283) 참조.

28) 광복 당시 우리나라 문맹률이 78%에 달했으므로(오성철, 2000:114), 한글깨치기는 지상 과제라 할 만하다. 이러한 목적은, 초등학교 전 수업시수 가운데 30%나 국어 수업으로 충당되었다는 점만 보아도, 국어과목이 타 교과의 학습을 위한 기초 도구 교과였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29) 광복 이전에는 ‘教育科程’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敎則大綱(1895, 관보138호)’, ‘敎則(1907, 관보3549호)를 사용하였다. 해방 후, 교수요목은 서두에 국어과 일반 목표를 기술한 ‘교수요지’와 구체적 목표를 기술한 ‘교수방침’을 기술하고, 본문에 ‘교수사항’과 ‘교수의 주의’ 항을 구분 기술했다.

30) 김천기(1992:45-69), 진보주의 교육이 한국 교육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수정주의적 분석 : 미군정기를 중심으로,

美軍政 初의 教育部門의 담당자는 라카드(Earl N. Lockard) 大尉이었다. 그는 1945년 9월 11일부터 5·6인의 士官과 함께 일을 시작하였다. 라카드는 吳天錫을 비롯한 여러 한국인 교육자들로부터 교육 문제에 관한 助言을 求하고자 하여 16일에는 교육의 각 분야에 걸친 指導者 7인으로써 韓國教育委員會를 組織하였다. (중략) 다른 한편, 11월 23일에는 9개 分科會의 10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교육 심의회를 조직하여 본과회의 105회, 전체회의 20회 등의 여러 차례의 會sum을 거듭하면서 교육이념과 교육제도 등에 관한 여러 重要한 사항을 決定하였다³¹⁾.

교수요목이 공포(1945.9.30)되기 불과 2주 전에 ‘한국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구성원은 ‘俞億兼(전문교육), 金性洙(고등교육), 玄相允(중등교육), 白樂濬(교육전반), 김성달(초등교육), 金活蘭(여자교육), 崔奎東(일반교육)’ 등 7인으로 시작하다가, ‘尹日善(의학교육), 趙伯顯(농업교육), 鄭寅普(학계대표)’가 가세하여 10인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미군정청 산하 ‘朝鮮教育審議會’가 발족하여, 제1차 회의(11월 23일)에 100명의 각 분과별 심의위원이 모였는데, 그것은 마치 한국의 최고 지도자 회합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함수근, 2000:38)고 한다. 어쨌든 이들 100명의 한국인 위원 중 3분의 2인 60여명 이상이 일본, 미국 등의 유학 경험자로서 해외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유억겸, 오천석, 홍정식, 최현배, 장지영, 이호성, 이승재, 이홍중, 사공환’ 등은 이미 학무국 직원³²⁾이었다. 정태수(1992:300)에 따르면, 협의, 자문의 성격을 지닌 조선교육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10개의 분과로 구분되었다. 각 분과에 속한 이름만 보더라도, 당시 ‘지식인’들의 경력과 성향을 한눈에 짐작할 수 있다³³⁾.

이 중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문제는 주로 4분과와 5분과위원회에서 그 초안이 마련되어 조선교육심의회 전체 회의를 거쳐 심의 결정되었

31) 윤팔중(1974), 한국교육과정 발달사 III, 서울교대논문집, 제7집.

32) 정태수(1992),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상), p.137. 이 당시 학무국 재직 한국인은 25명이다.

33) 이에 대해 함수근(2000:29)은 ‘대부분이 보수 우파적 성격의 인물들이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①고학력, ②한민당 계열. ③기독교 신자, ④친일적이거나 소극적인 노선을 취했던 인물들이었다’로 평가하였다.

으며, 한국교육위원회와 함께 시안을 만들어 ‘교수요목’이 공포되었다³⁴⁾.

<제1회 조선교육심의회(1945.9.23)의 분과별 위원명단>

제1분과(교육이념)	안재홍, 정인보, 하경덕, 백낙준, 김활란, 홍정식, 키퍼대위
제2분과(교육제도)	김준연, 김원규, 이훈구, 이인기, 유억겸, 오천석, 에레트 소령
제3분과(교육행정)	최두선, 최규동, 현상운, 이묘목, 백남훈, 사공환, 글렌 대위
제4분과(초등교육)	이호성, 이규백, 이강원, 이극로, 이승재, 정석윤, 밀렌 중위
제5분과(중등교육)	조동식, 고헌경, 이병규, 송석하, 사원출, 이홍종, 비스코 중위
제6분과(직업교육)	장면, 조백현, 이규재, 정문기, 박장력, 이교신, 로렌스 대위, 로리트슨 중위
제7분과(사범교육)	장덕수, 장이욱, 김애마, 신기범, 손정규, 허현, 팔리 대위
제8분과(고등교육)	김성수, 유진오, 윤일선, 백남운, 조병옥, 박종홍, 크로프 소령, 고오든 소령
제9분과(교과서)	최현배, 장지연, 조진만, 조윤제, 피천득, 황신덕, 김성달, 웰치
제10분과(의학교육)	이용설, 유억겸, 박병례, 심호섭, 최상채, 고병간, 최동, 정구충

당시 조선교육심의회는 제4분과와 제5분과는 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심의 내용(Topics to be discussed)을 보면, 당시의 교육과정 논의에서 어떤 절차로 무엇을 쟁론화했는지 예측할 수 있다³⁵⁾.

34) 정태수, 위의책, p.300.

35) 정태수, 위의책, p.300.

<제1회 조선교육심의회(1945.9.23) 심의 내용>

초등교육분과	중등교육분과
A. 초등교육의 목표	A. 중등교육의 목표
B. 학과목, 교육과정	B. 학과목, 교과과정
C. 교수법	C. 교수법
D. 수업편성-개인차의 적용	D. 수업편성
E. 의무교육	
F. 수업일수, 학사일정	

위 심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과 비슷한 논항들을 심의하며 중등분과는 초등분과에 비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심의 결과로, 1945년(9월 30일)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수요목과 수업시간이 일부 발표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학교와 중등학교는 주당 각각 9시간, 5시간이라는 상당히 많은 시수의 ‘국어’를 배정한다. 이후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주관하던 교수요목은 1946년 이후 초등과, 중등과, 편수과 등으로 학무국이 세분화·전문화 되어가면서 업무의 주도권이 학무국 편수과 주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1946년 2월 이송녕 외 362인이나 되는, 학교급별 교과별 교수요목제정위원회가 조직되며, 이 편수과 주관의 ‘교수요목제정위원회’는 정부수립 후까지 지속되면서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교수요목 제정에 참가한 구성원의 절반이 국문학자임을 보면, 당시의 국어교육이 교육 전반을 주도할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어과 교육이 모든 교육에 우선하며 또 주체이며 모든 교육의 구심점이 되었다. 예컨대, 교과서 분과의 ‘최현배, 장지연, 조윤제, 피천득’, 학무국의 요지에 있었던 ‘백낙준, 김활란, 정인보, 이극로, 유진오’, 후에 편수국을 지휘했던 ‘이송녕’도 모두 국어국문학자였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한글 첫걸음(1945.9)’이나 ‘초등·중등 국어교본(1945.12-1946.9)’이 다른 교과서보다 가장 먼저 발간된 것도 이와 관련된다. 이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의 국어 수업 시수는 9시간으로, 전체 시수의 35%를 차지했다는 점도 기초 도구교과로

서, 또 교과 교육의 선도자로서 국어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교과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았던 국어과에서, 그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떤 이론들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자. 김천기(1997:45-69)는 미군정기 교육과정 논의가 오천석(1975)³⁶⁾에 의해 거의 주도되다시피 한 점을 지적하면서, 오천석은 미국에서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을 공부하고 특히 아동 중심 교육에 바탕을 둔 진보주의³⁷⁾ 교육 이론을 한국에 적용했으며, 미군정 학무국이 주관하는 교사 훈련 과정에서 직접 듀이의 교육 사상을 소개하는 등(김천기, 1997:49), 교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개 1차 교육과정을 일컬어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 사조의 영향을 받은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라 하지만, 이는 교수요목기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오천석이 제기한 ‘새교육의 목표³⁸⁾’는 미군정기 당시의 교육과정의

36) 미군정이 시작될 때 한국인 직원으로서 학무국에서 일한 최초의 3인은 오천석, 최현배, 최승만이다. 이들은 학무국사(history of bureau of education)에서도 특별히 그 공로를 기록할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오천석에 대해서는 “...3명의 한국인 인사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영향이 대단하므로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첫 번째가 오천석이다(미국 코넬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석사 학위,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든 학위가 교육학임). 미국에서 교육받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처럼 그도 공립학교의 고위직에 있어 본적도 없고, 단지 사립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었다...”와 같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오천석이 미군정기 학무국에서 막강한 영향정태수, 1992:52-53)을 지녔으며, 한국의 진보주의 교육자들 가운데, 한국에 듀이의 교육사상을 도입, 해석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김천기, 1997:49)로 기록되었다.

37) 이 당시 ‘진보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진보주의를 과학, 테크놀로지, 지능 등의 가치의 우선성을 신봉했던, 미국식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고자 일어났던 진보주의 개혁 운동 정도로 요약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천기(1997)를 참고

38) 오천석(1975a:117-118)은 한국 교육학자들이 새교육의 전범으로 자주 인용하게 된 새교육의 다섯가지 목표를 진술하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① 전통적 교육의 계급주의적 차별주의를 배격하는 것(일제식 봉건 교육의 철폐)’, ‘② 인간을 도구화하는 교육에 반항하는 것(일제의 총량한 시민을 만드는 목표에 반대)’, ‘③ 자유에 기반을 둔 교육(옛교육의 억압주의 반기)’, ‘④ 개인차 인정하고 개성을 살리는 교육(획일주의적 교육 거부)’ 그리고 아래의 다섯 번째 목표를 제시한다. 이 가운데 다섯 번째 교육은 특히 주목할 부분이라 따로 인용 발췌한다. : ⑤ 다섯째로, 우리는

성격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내용 중 몇 항목은 일제식 교육 일소①과 ②나 기존의 교육, 즉 해방 이전까지의 교육에 대한 비판③~⑤을 전제한다. 요컨대, 오천석은 듀이식 이론을 바탕으로³⁹⁾, 지식 중심 교육에 반대하고 생활 중심 교육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로써, 소학교령의 교칙대강에 등장했던 ‘독서, 작문, 습자’의 언어 생활 중심 교과 내용은 교수요목기에 다른 의미로 재등장하게 된다.

국어과 교수요목의 내용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국민학교	중등학교
교수 요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른 말과 맞는 글을 깨쳐 알기 2. 바르고 똑똑하게 나타내는 힘 기르기 3. 지혜와 도덕심을 복돋우어 국민된 도리와 책임을 깨닫기 4. 국민성과 국문화를 밝혀 국민 정신 기르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어 이해와 사용력 기르기 2. 문화 전승, 확충, 창조하기 3. 지·덕을 열어 건전한 국민 정신 기르기
교수 방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어의 특질을 알고 자유롭고 똑똑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2. 국어와 국민성과 국민의 품격을 위하여 국어애로 개발 다짐 3. 국어사, 국문학사를 알게 하여 국문화를 한층 더 빛나게 하고, 세계 문화에 기여하도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다운 사상·감동의 표현 방법을 가르쳐 국민 애중의 생각을 기름 2. 국어, 국문의 사적 전통을 구명하여 국민 정신을 기르고 문화 창조의 신념 배양 3. 덕육, 지육, 체육 등의 정신과 식견을 길러 중견 국민의 사명을 깨닫게 함

과거의 문화적 유산을 전달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 지식 중심의 교육, 현재의 실생활과 유리된 서적 중심의 교육을 배격하고 사람 전체의 발달 향상을 목표로 하는, 현실과 따뜻한 교섭을 가진 산 교육을 지향하였던 것이다(오천석, 1975a:118).

39) 듀이(Dewey, 1938:22-23)의 ‘Experience & Education’에서 생활 중심 교육에 관한 인용은 유명하다. 김천기(1997:50-51)에서 재인용한다 : ‘우리는 과거의 지식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반대하고 단지 수단으로서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이다. ... 과거의 지식을 아는 것이 살아있는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과거의 지식을 아동들에게 소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p>교수 사항 (영역 구분)</p>	<p>(읽기, 말하기, 듣기, 짓기, 쓰기로 5영역 구분하여 기술함)</p> <p>①읽기: 깨끗한 글, 시원스러운 글, 힘차고 올바른 글을 가려 국가 관념, 국민도덕, 지혜 넓히기, 인격 다듬기, 정서를 아름답게 할 것을 골라 국민의 바탕을 가를 것</p> <p>②말하기: 바른 소리를 내게, 뜻을 똑똑하게, 본이 있는 말과 표준되는 말을 쓰게 하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점잔하고 무게 있게 하도록 할 것</p> <p>③듣기: 차근차근 정성을 들여 바로 듣고 뜻을 잘 헤아려 깨닫기에 힘쓰도록</p> <p>④짓기: 생각과 경험을 거짓 없이 참되고 미쁘게 짓도록 하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조리박게 하여 그 뜻을 선뜻 알아낼 수 있게 하며, 남의 글의 잘됨과 그릇된 점을 잡아 내도록 하여 제가 바로 쓸 길을 얻도록 할 것</p> <p>⑤쓰기: 자획의 필순, 글자 모양을 아름답게 쓰도록</p>	<p>(읽기, 말하기, 짓기, 쓰기, 문법, 국문학사로 6영역 구분하여 기술함)</p> <p>①읽기: 국어의 익힘 풀기, 감상, 비평, 받아쓰기 등으로 국가 의식 고취, 식견을 밝히고 실천, 글로 문예를 즐기며 심신을 건전하게 하는 국민 자질 기르기</p> <p>②말하기: 사상 체험을 똑바로 발표. 틀린 말 바로 잡고, 雅語, 敬語 쓰는 법 익히기</p> <p>③짓기: 현대어를 위주로 감상을 익히 드러내고, 여러 가지 글을 짓게 하여 사상, 체험의 자유로운 표현과 침삭, 비평 능력 기르기</p> <p>④쓰기: 정확, 민속, 깨끗하고 아름답게 쓸 것</p> <p>⑤문법: 소리 글자 어법 가르치기, 국어의 특질 이해, 현대어, 신조어, 고어, 방언, 표준어, 외래어의 명확한 인식, 국어의 사적 발달의 개요 알기</p> <p>⑥국문학사: 국문학의 사적 발달 개요 알기, 국민 특성</p>
<p>교수 주의</p>	<p>1. 모든 학과에서 말과 글을 바로 가르치기</p> <p>2. 글씨도 바르고 빠르게 잘 쓰도록 하기</p> <p>3. 우리 국민성에 비추어 특징을 알고 힘쓸 것 알기</p>	<p>1. 읽기, 말하기, 문법, 짓기, 쓰기는 서로 관계지어 가르치기</p> <p>2. 읽는 법을 익혀 반복 수련하여 문리에 정통하게 하기</p> <p>3. 발음을 정확하게 하여 귀조(句調)와 문세(文勢)를 분명히 구별하여 뜻을 이해하기</p> <p>4. 풀기는 글월의 의미와 요지 알아내기 위주로 어귀와 뜻 이해</p> <p>5. 국민 정신 기르기에 힘쓰기</p> <p>6. 가끔 받아쓰기를 시켜 읽기의 교수 효과를 정확히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올바른 어휘, 어법에 맞는 말을 하게 하고 자세와 태도를 수련하게 함 8. 이해력, 발표력을 정확히 하고, 국어에 대한 관심 가지게 하기 9. 짓기는 정서 기르기, 식견 높이기, 국민 자질 심화 10. 말하기와 쓰기는 읽기와 짓기 시간에 적당히 지도함 11. 초급과 고급의 선택과목은 보충 교재로 교수함 12. 한문도 교수할 수 있음
--	--

위의 표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현대적 관점으로 체계화되었다. 여기서 현대적이라 함은 일제 강점기의 ‘조선교육령’과 비교할 때, 미국식을 의미한다. 당시 미국이 자유 진영의 중심에 있었던 점을 떠올리면, 현대화는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과정론의 도입과 등식이 된다. ‘교수요목’은 다시 ‘교수 요지’, ‘교수 방침’, ‘교수 사항’, ‘교수 주의’의 4부분, 즉 국어과 교육에 대한 개관, 국어과 교육의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현대적 교육과정의 틀에 근사한 형태이다.

위에서, 당시 교수요목의 구성에 참석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살펴보았듯이, 특히 미국과 일본의 유학파들에 의해,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에 유행하고 있던, 듀이식 생활 중심 교육이론이 적용되어 교육의 형식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여기에 한국적인 내용이 주체적으로 가미되었다⁴⁰⁾. 예를 들어, ‘교수 사항’은 오늘날의 교육내용의 영역 구분에 해당하는데, ‘말하기·듣기·읽기·쓰기’와 같은 오늘날 사용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며, 언어 활동 중심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

40) 사회과와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주의 학교에서 사용한 실리버스를 참고 용으로 사용했다(세키, 1986, 김천기, 1992:64, 재인용)고 명시되어 있다. 국어교과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당시 ‘미국 교과서가 대부분의 한국 교과서를 편 집하는 지침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여러 군데 보인다.

다. 이는 아동 중심 교육과 경험으로서의 학습 내용 설정이라는 진보주의 교육의 특색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아동, 즉 학습자 중심의 교육 용어를 사용하여, ‘소학교령 교칙대강’에서 ‘독서 작문, 습자’가 현대적 변용을 통해 상세화되고, 또 목적 중심으로 기술되며, ‘읽기, 말하기, 듣기, 짓기, 쓰기’가 아동 중심, 학습자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다.

중등학교의 경우도, 읽기, 말하기, 짓기, 쓰기, 문법, 국문학사의 여섯 영역이 기능 영역과 지식 영역으로 나뉘어 계열적 관련없이 기술된다. 이 교수요목은 문자 그대로 ‘要目’에 불과하지만, 국어 교과에 언어 수행을 중시하고, 언어 수행에 기반이 되는 지식 내용들을 따로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은 차기 교육과정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특히 ‘문법’과 ‘국문학사’ 영역 구분의 틀은, 5차 교육과정까지의 뼈대를 이룬다. 예를 들어, ‘문법’ 교수 사항은 ‘음운·형태·통사론의 교육, 표준어 교육, 국어의 역사 및 특질 이해 교육’과 관련되는데, 이는 오늘날 ‘국어지식’ 영역의 주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문학’ 영역의 ‘국문학사 개요’는 4차까지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 내용이 되었다.

둘째, 학습 수준에 대해 기술은, 국민학교와 중등학교 모두 국어과에 해당하는 내용과 상위 교육 목표와 관련된 내용이 위계없이 나열된 듯한 인상을 준다. 영역별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교수 사항을 보면, 각 영역별로 도달해야 할 학습 수준을 언어 활동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당시 학제가 실업 교육과 인문 교육으로 구분된 이원제에 바탕한 6-3-3제가 이미 확립된 점을 감안하면, 학년 구분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셋째, 이 당시 이데올로기 교육의 특징을 보여주는 국어과의 성격이 드러난다. 교수요목 전반에 ‘국가주의적 성격’이나,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이념 교육이 당시 정치 상황과 관련지어 보면, 상당히 중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단순히 정부 수립 이전이었기 때문에 국가관 형성이 교육 내용으로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의 군사 점령이 어떤 성격이었는가와 관련된 최근 정치 사회적 논의⁴¹⁾를 참조하면, 이러한 국가주의 이념은 ‘공산주의와의 대

립'을 의도하는 제한된 '국가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된 도리와 책임을 깨닫게(초등요지), 국민정신 기르고(초중등요지), 국어와 국민성과 국민의 품격을 위하여(초등방침), 국민 정신을 기르고, 중견 국민의 사명을 깨닫게(중등 방침), 국가 관념, 국민 도덕(초등사항), 국가의식 고취, 국민 자질 기르기, 국민특성을 기르기...(중등사항)' 등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국가'를 보면, '교수주의'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국어교육을 통해서 '국민 정신 기르기(5번째 문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교과서의 단원 구성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시에 발행된 교과서, 일명 *운끄라* 교과서⁴²⁾의 내용은 반공 이데올로기 일색으로 전시 상황의 이념 대립을 극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전의 교과서도 제재를 보면, '청년/ 청년이여, 앞길을 바라보라(조만식-중등조선어교본(상)), 인격 완성과 단결 훈련(안창호), 선구자(양주동)-중등국어교본(중), 학생의 정신(안창호-중등국어2)' 등 한 교재에 한 제재 이상을 신고 있다.

이와 함께, 1946년 2월 21일, 미군정청 학무국은 조선교육심의회에서 '教育의 中心 指標를 學童들에게 "民族意識을 高吹하다"로 결정'(박봉배, 1987:517, 재인용)하였다. 이 당시 국어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이념 교육임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어를 교육하고(learning language), 국어에 대해 교육함으로써(learning of language) '국어' 교과가 민족 의식 고취의 적절한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수요목에 기술되어 있는 '국가관'도 민족 의식 고취와 상당히 관련깊다 할만하다.

넷째, 그 밖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이 있는데, 먼저, 중등학교까지 짓기(작문)와 쓰기(글씨쓰기)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41) 김천기(1992)는 해방 후 미군정의 군사적 점령 통치는 일본의 구제국주의와 미국의 새로운 지배와의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미국의 강력한 통제의 영향은 실로 지대하여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까지 지속적으로 깊이 스며들었으며, 결정적으로 친미 지배 구조가 이때부터 형성되었다고 본다.

42) *운끄라* 교과서(전시 교과서:국제연합한국재건 위원단 UNKRA라는 표식이 인쇄됨) : 속표지에 당시 문교부 장관 백낙준의 *운끄라*에 대한 감사의 글과 함께 서명을 표시하고 있음.

보면, 글씨쓰기가 상당히 중요한 교육 내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당나라 때 이후로 관리 등용의 평가 기준이 되었던 신언서판(身言書判)의 사고관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글쓰기’는 일제 강점기 이전의 것과 상당히 달라졌음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의 ‘쓰기’ 즉 ‘습자’에 대한 항목에서⁴³⁾ ‘해서와 행서, 초서’가 바른 자세와 함께 교육 내용으로 설정되어 ‘서예법’을 전제한 한자 쓰기가 중시되었다. 그러나 교수요목의 ‘쓰기’는 한자 교육에 대한 전제가 배제되었으며, 순수하게 ‘한글’ 자체(字體)의 미적 고려에 신경쓰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는 초·중등 교육에서 한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는 문식성 교육이 상당히 중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것은 미군정이 학교 교육을 통해 문맹 퇴치라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국어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과 요구가 반영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구성에서 오늘날과 다른 부분이 있다. 초등교육에 설정되었던 ‘듣기’ 영역이 중등학교에서는 설정되지 않았다. ‘교수 주의’란에 보면, ‘말하기와 쓰기는 읽기와 짓기 시간에 적당히 지도함’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아, 교육 내용으로서의 ‘말하기와 듣기’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그렇지만,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교수 주의’란에, ‘발음을 정확하게 하여…, 귀조(句調)나 문세(文勢)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올바른 어휘, 어법에 맞는 말을 하게하고 자세와 태도를 수련하게…, 이해력, 발표력을 정확히 하고…’ 등으로 전체 12항목 중에 4항목 이상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말하기 영역만의 고유한 교육 내용으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전체 학습 상황에서 교사가 주의해서 가르쳐야 할, ‘국어 학습 관련 태도나 습관’ 째로 인식되고 있는 인상이다.

43) 소학교 교칙대강 제 4조 일부 : ‘漢字의 書體는 尋常科에는 楷書或行書로 하고 高等科에는 楷書 行書 草書로 함. 習字를 授는 時에는 別로히 姿勢를 整하고 執筆과 運筆을 正케 하야 字行은 整正히 하며’

이와 같이, 미국식 교육과정에 따라 ‘언어 사용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형식적 틀이 마련되었지만, ‘말하기’와 ‘듣기’를 하나의 교육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타 영역과 같이, 변별적 교육 이론으로 기술해내는 것이 당시로서는 어려운 작업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말하기·듣기·읽기·짓기·쓰기와 같은 교육과정의 형식적 체계는 실제적인 언어 경험이 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진보주의 교육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내용을 보면, 중등학교에서 문법과 국문학사를 새로 설정하는데, 이로써 오늘날과 같은 6대 영역 구분의 단초가 교수요목에서 마련되었다는 점은 새삼 놀랄 만하다. ‘말하기·듣기·읽기·쓰기’와 같은 언어사용 기능과 ‘문법·문학’과 같은 지식이 그 성격상 동일선상에서 계열적(paradigmatic)으로 배열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결국은 교수요목에까지 소급되는 뿌리 깊은 문제 제기이다. 이와 동시에 초등교육에서 이러한 지식 영역의 설정이 배제되어 있고 오로지 언어 사용 기능 중심으로만 교육 내용이 설정되어 있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이는 교수요목이 유의미한 학습 경험으로 교육 내용을 삼고자하는 생활 중심 교육과정에 근거함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부분⁴⁴⁾이면서, 동시에 최소한 초등교육에서는 ‘한글’에 대한 문식성 교육이 중요한 목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국어과 교육과정의 형성 과정에는 진보주의 교육과정의 유입이라는 외적 요인과 국어에 대한 인식이라는 내적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새로운 국어 교과서의 모색 : 한글 전용 ‘교본’

해방 직후 등장한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군정기에 제작된 거의 모든 교과서가 ‘한글’ 표기 위주로 제작되었다⁴⁵⁾는 점이다. 이것은 ‘한

44) 초·중등 과정의 교육 내용이 다른 영역으로 설정되었다고 해서, 계속성이나 계열성이 문제시되는 정도는 아니다.

45) 이에 대해서는 부록의 표 참고

글 전용(1948.10)' 공포 이전부터 나타나는데, '한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즉 앞서 논의한 국어에 대한 자각이 국어 교과와 교과서 제작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음을 방증한다. 즉, 국어 교과서는 한글로 인쇄되어야만 했고 그 내용도 국문학적인 것으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이 당시 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특징으로서 첫째는 이전에는 없었던 '교본'이 등장하게 된다는 점이다. 해방 직후의 교과서는 '초등국어교본(1945.11)', '중등국어교본(1946.9)', '새중등작문교본(1948.1)' 등 '교본'이라는 제목이 등장한다. 이들은 학년 체제에 맞춰 1학년에 1권 또는 전후 학기에 맞춰 두 권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년과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구성 하에 제작되었다. 미군정청이 '교본반포식⁴⁶⁾'을 거행할 만큼 특정 명칭이 된 '교본(敎本)'은 그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교수요목이 교육과정으로서 마땅히 역할을 하지 못하던 시기⁴⁷⁾, 교과서가 교과 교육의 근본이 되는 지침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해방과 함께 교육 수요는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그러나 당시 정식 정부 형태가 아닌 미군정은 잠정적 행정 기관에 불과했다. 따라서 그들이 실제 교과서를 만들 학문적 행정적 구성력을 지니지 못했다. 미군정은 '임시로' 조선어학회의 연구진들을 빌어 책을 만들고 이를 발행함으로써 국어 교과서를 급조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한글 첫걸음(1945.11), 초등 국어교본(1945-1946), 중등 국어교본(1946-1947), 한글교수지침 1집(1945.12), 2집(1946)'은 모두 '조선어학회'에서 편찬된 것으로, 발간과 거의 동시에 미군정청 학문국이 발행권을 이양하여,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에서 인쇄하고, 보급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본은 교육과정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실정에서 교과서를 교육과정시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 당시 조선어학회 '敎材編纂委員會'의 집필 위원을 보

46) 1946년 11월 20일 '한글 첫걸음'과 '중등 국어교본(상)'이 인쇄된 후, 미군정청 학무국 제1회의실에서는 '군정장관'과 당시 편수국장 '최현배', 관계학자 '조윤제'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國語敎本頒布式'이 거행된다.

47) 1945년 9월 30일은 초안에 해당하며, 1946년 11월 16일이 되어서야 교수요목의 내용이 1차로 완결된다.

면, 놀랄 만하다.

집필 위원으로는 ‘이희승, 이승녕, 정인승, 장지영, 윤재천, 이호성, 방중현, 이태중, 윤복영, 윤성용’이며, 심의 위원은 ‘조운제, 최현배, 이극로, 김윤경, 김병제, 이은상, 이세정, 양주동, 주재중, 조병희’ 등이다 (박봉배, 1987:522). 이로써, 당시 국어학계를 이끈 학자들 및 지식인들이 총망라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재건의 토대로서,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했을 것이며, 또한 국어 교과서 제작은 그러한 토대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큰 사명이 되었을 것이다. 조선어학회의 집필위원과 심의위원 중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교재 편찬 작업에 착수한 점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⁴⁸⁾.

당시 ‘교본’은 학무국 산하에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부서가 없는 상황이고, 단지 조선어학회의 ‘교재편찬위원회(1945.9)’에서 만든 교재를 심의·인정한 후에 교과서로 채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교수요목’ 내용이 민간 단체에서 만든 교과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은 학무국에서 상당수의 국어 교재를 발간하는 1947년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이 당시 ‘교본’을 중심으로 한 국어 교재는 ‘교수요목’의 ‘교수 사항’, 즉 교육 내용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독본 형태들이다. 특히 말하기·듣기·읽기·쓰기와 같은 언어 활동 내용들이 교재나 학습 활동에 전혀 고려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내용면에 있어서는, 일제강점기와 근대 계몽기에 비해 ‘현대적’이라 할 만하다. 제재 측면을 보면, 우리의 고전 문학 작품과 우리 위인들의 전기를 신고 있는 것은 해방 이전의 교재에서와 같지만, 1910년대부터의 현대시들이 다량 수록되고, ‘안창호’, ‘김구’와 같은 독립운동가의 글(연설문), ‘에디슨’과 ‘발명가 스티븐슨’과 같은 미국 과학자들의 일화와 ‘민주주의’나 ‘사회 질서’와 관련된 제목들을 가진 설명문 등이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변화된 점이라 할 만하다.

48) 부록의 표 참고

<조선어학회원 중에 개인적으로 교재를 편찬한 책 목록 :
미군정기~정부수립기⁴⁹⁾

시기	서명	편찬자	발행자	사용 문자	학교급	발행년도
군정	한글첫걸음	조선어학회	군정청학무국	국문	초/중등	1945.11
군정	초등국어교본	조선어학회	군정청학무국	국문	초등	1945.12
군정	중등국어교본	조선어학회	군정청학무국	국문	중/고등	1946.9
군정	한글교수지침 (一집)	조선어학회	군정청학무국	국문+한문	초/중등	1945.12
군정	한글교수지침 (二집)	조선어학회	군정청학무국	국문	초/중등	1946.1
군정	歷代朝鮮文學精華(上/下)	이희승	박문출판사	국문+한문	중등	1947.7
군정	가려뽑은 옛글★	장지영	정음사	국문+한문	전문대	1947.8
군정	소학문예한글 독본	정인승	조선어학회	국문	초등	1947.4
군정	작문독본	윤성용	동지사	국문	초등	1946.9
군정	중등조선말본	최현배	정음사	국문	중등	1946.
군정	중등국어1 (남자)	이극로 정인승	정음사	국문	중등	1948.3
정부	文學讀本★	방중현 김현규	서울·조문사	국문	중등	1950(?)
정부	신정문학독본	방중현 김형규	조문사	국문	고등	1949.8
정부	한글독본	정인승	서울·정음사	국문	초등	1948(?)
정부	신편중등국어	김병제	김병제	한글	중등	1948.10

4) 문법서 중심에서 다양한 독본류로의 변화

개화기나 일제 강점기때는 ‘문법서’가 주된 발간물이었다면, 이후 독본(讀本)류가 유행한다. ‘독본’이라는 명칭은 해방 이전에는 주로 ‘교과서명’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수업 교재만이 아닌, 일반 교양서로서 성인용 또는 고등학생용 ‘읽기 자료’로서 주로 발간된다⁵⁰⁾.

49) (?)표로 된 발행년도는 미확인된 것으로 2차 자료에 근거함.

50) 교과서라기보다는 독본류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은 부록3 참고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의 정수(精髓) 중에서 교육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 가치있는 텍스트들을 선별하여 시대순으로 싣고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김사엽의 ‘신생국어독본⁵¹⁾’의 경우, ‘(1)三角山(柳致眞), (2)溫突과 白衣(홍명희), (3)丁若鏞, (4)가꿌아, (5)故鄉論, (6)새거름(일송), (7)山村水郭(時調), (8)人格完成과 團結訓練(안창호), (9)木槿花(문일평), (10)歷史를 통해서 본 朝鮮人, (11)竹頌, (12)窓(김진섭), (13)遊山歌, (14)竹下相公, (15)鄭夢周, (16)一片丹心(時調), (17)幸州山城戰跡(유광열), (18)祭針文 (19)鄭石歌(高麗歌謠) (20)俗談(김사엽 편) (21)百濟의 歌謠(문일평 편) (22)龍飛御天歌 (23)思美人曲(松江歌辭)’을 싣고 있으며, 같은 종류로 고급용 ‘中等國語新生教本(1946)’은 ‘(1)尊受, (2)多樂樓夜話(양주동), (3)窓(김진섭), (4)現代詩抄-가. 鄭芝溶篇:바다, 고향 /나. 金起林篇:우리들의 八月로 돌아가자, 금봉어 /다. 金光燮篇:隨想, 谷, (5)歷史를 통해서 본 朝鮮人, (6)湯水俱水의 二老(박종화), (7)朝鮮民謠의 概念(김사엽), (8)俗談集(二百首), (9)時調集(百首), (10)供養米三百石(‘深靑전’의 一節), (11)活貧黨(‘洪吉童傳’의 一節), (12)놀부의 暴惡(‘輿夫傳’의 一節), (13)권음찬(‘謝氏南征記’의 一節), (14)杜詩諺解, (15)영남가(박인로), (16)漁父四時詞(윤선도), (17)關東別曲(정철), (18)思美人曲(정철), (19)續思美人曲(정철), (20)‘獨立宣言書’을 싣고 있다.

장지영의 ‘가려뽑은 옛글(단기4280년)’은 우리의 훌륭한 고전 작품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제목만을 적어보면, ‘(1)訓民正音, (2)時調, (3)深靑傳, (4)弔針文, (5)洪吉童傳, (6)時調, (7)五倫行實, (8)繫主簿傳, (9)時調, (10)春香傳, (11)時調, (12)關東別曲, (13)思美人曲, (14)杜詩諺解, (15)時調, (16)父母恩重輕, (17)二倫行實, (18)時調, (19)七大萬法, (20)王郎返魂傳, (21)時調, (22)三綱行實, (23)時調, (24)龍飛御天歌, (25)時調, (26)法語抄, (27)禪宗永嘉集, (28)時調, (29)月印釋譜, (30)時調⁵²⁾, (31)思母曲,

51) ‘김사엽’은 경북지역의 교육자이며, 교재 편찬자였다. 경북교육협회 발행의 3권의 저서가 발견되는데, 그중 신생국어독본은 정확한 연대가 없고, 다만 김사엽의 ‘신생’ 시리즈의 내용이나 구조에서 흡사한 점으로 미루어 신생국어독본(1946년)이 발행되던 시기 정도로 추정한다.

(32)井邑詞, (33)靑山別曲, (34)鄭石歌, (附註)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 계몽기(1890년대-1910)와 일제강점기(1910-1945)의 국어 자료 중에는 이렇듯 다양한 장르에서 많은 양의 고전 작품들을 선별하여 묶은 책을 찾아 볼 수 없다. 이 당시 국어 교재로는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동기에서건 ‘국가’, ‘국어’, 구체적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면서, 서구적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학구열만큼이나 그 반대 국면에서는 ‘우리의 것’에 대한 자각과 애정이 싹트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교육계에서도 주로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자들이 이러한 민족주의적 자각의 선두에 섰던 것을 보아, 우리의 고전과 우리의 현대문, 그리고, 우리 ‘국문학사’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선행되었을 것이고, 이 결과 다양한 읽기 자료집들이 등장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이 국어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는 김사엽의 중등신생국어교본(1946)의 ‘머릿말’에 밝힌 바와 같이, ‘文教部發行本과 併用하면 可할까한다’는 취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독본류는 국어국문학의 고전 작품들과 당시의 새로운 문학 형식을 비평적 기준에서 선편(選編)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순수하게 텍스트를 읽고 감상하기 위한 ‘작품 감상집’이다. 당시 학생들은 독본들을 읽고 문학적 감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독본류로 인해 고전 및 새로운 문예 양식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고전 발굴(선편) 과정을 통해, 역사적으로 단절될 수 있었던 우리 문학의 흐름을 잇고, 현대적 시각에서 고전 및 전통에 대한 이해와 재해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국어’ 교과 형성 과정의 의의는, 풍부하고 수준높은 읽기 자료들을 발굴함으로써 국어교육의 내용 구성에 유용한 자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당시에 이러한 독본이 국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이뤄진 연구 활동의 결과인지, 혹은 우리의 국문학 작품에 대한 중요성의 자각으로 의도적으로 연구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텍스트 읽기의 유행이

52) 한 단원에 시조 10편씩, 10단원에 총 100여편 이상이 실려있다. 장지영 역시 김사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시조들을 발굴하였다.

우리의 고전과 현대문의 전형화, 이른바 ‘정전 텍스트’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독본류에 실린 작품들 중에 전후(戰後) 월북 작가를 제외하면, 대개 2차에서 6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제재들이라는 점에서 낮설지 않고 친근한 작품들이 많다. 특히 3차와 4차 국어과 교육과정(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교과서 단원에 실린 제재의 거의 대부분이 선정되어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우리의 스키마에 ‘고전/정전(core-text)’이라는 개념이 확립된 것도 이로부터 연원하는 것 같다. 이는 이미 이 당시 국문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러한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 및 비평 활동을 통해 정전의 두터운 층이 형성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Ⅲ. 결 어

본고는 일종의 중단적(繼斷的) 연구로서, 미군정기부터 1차 교육과정 이전 시기를 다루었는데, 이를 위해 그 이전의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기술했다.

당시, 언어의 해방과 함께 국어에 대한 소중함과 우리 것에 대한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우리 것’에 대한 자각, ‘국가/국민 의식’이 요청되었고, 그로 인해 구어뿐만 아니라, 표기 형식으로서 ‘한글’에 대한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외형적으로는 1948년 ‘한글 전용’을 공포하면서, 현대적 표기 수단으로서 독자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제 우리 생활에는 한자가 중요한 병기 수단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인위적인 정책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상황의 변화는 교과 형성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방과 동시에 주체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개념의 교육을 입안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상하고, 당대의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심의한 결과로서 교수요목이 탄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어국문학자들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국가나 민족 개념이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심 이념이 되었으며, 한글 문식성을 획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었다. 이를 위해 도입된 진보주의 교육 이론은 생활 중심의 교과 내용을 편성하게 되었고, 교과서 및 교재 제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참고 문헌>

■ 자료 ■

장지영(1947), 가려뽑은 옛글.

김사엽(1945), 중학신생국어교본.

김사엽(1946), 신생국어독본.

대한제국 학부(1985), 소학교 교칙대강, 대한제국기정책자료집 6.

미군정청 학무국(1945-47), 국어과 교수요목, 국어과·한문과 교육과정 기준, 교육부.

김민수(1984), 『뉘어정책론』, 탑출판사.

김천기(1992), 「진보주의 교육이 한국교육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수정주의적 분석: 미군정기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30집, 2권, pp.45-69.

김혜정(2002), 「개화기부터 미군정기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괄적 고찰」,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pp.211-242.

김혜정(2003a), 「근대개몽기 내적 구성 원리 탐색」,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pp.283-322.

김혜정(2003b), 「일제 강점기 ‘朝鮮語’ 교육의 성격」, 『어문교육』 114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431-455.

박봉배(1897), 『한국국어교육전사』 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511-593.

박봉배(1997), 『한국국어교육전사』 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2-132.

박혜인(1994), 「한국 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권 1호, p.90.

오성철(2000), 『직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pp.114-115.

오천석(1975a), 「민중교육을 지향하여」, 『오천석교육사상문집』 4, 광명출판사.

오천석(1975b), 「한국신교육사(하)」, 『오천석교육사상문집』 4, 광명출판사.

함수근(2000),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4-6.

한성진(1989), 「미군정기 한국교육엘리트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연구』 2집.

허재영(2002), 「근대 어문정책 및 어문교육 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0집. pp.457-490.

<국어교과서 목록 I : 근대⁵³⁾-일제강점기>

시기	서명	편찬자	발행자	사용 문자	학교급	발행 년도
근대	國民小學讀本	학부	학부	國漢古套文	초등	1895.7
근대	小學讀本	학부	학부	國漢古套文	초등	1895.8
근대	국國문정정리理	리봉운	학부	순국문	초/중등	1897.1
근대	新訂尋常小學	학부	학부	國漢混用文	초등	1897.2
근대	初等小學	대한국민 자강회	김상만, 고유상, 주한영	국문→ 국한문혼용체	초등	1906.12
근대	幼年必讀	현재	현재	國漢混用文	초등	1907.5
근대	初等女學讀本	이원금	변옥중	국문+한문	초등	1908.3
근대	蒙學必讀	최재학	미상	국문	초등	미상
근대	勞動夜學讀本	유길준	유길준	국한문 ¹⁾	기초	1908.7
근대	樵牧必知	정운수	안태영	국문	기초	1908.6
근대	最新初等小學	정인호	정인호	國漢混用文	초등	1908.7
근대	初等小學	보성관	보성관	국문	초등	미상
근대	普通學教學徒用國語讀本	학부	학부	國漢混用文	초등	1907.3
근대	新撰初等小學	현재	현재	國漢混用文	초등	1909.9
근대	녀즈독본	장지연	김상만	국문		1908.4
근대	富裕讀習	강화석	이준구	국문		1908.7
근대	국문초학	주시경	박문서관	국문	초등	1908.2
근대	國語習字捷徑	한승곤	평양광명서관	국문		1908.12
근대	大韓文典	최광옥	안악면학회	국한문	초/중등	1908.1
근대	高等小學讀本	휘문의숙	휘문의숙	국한문	중등	1906.11
근대	幼年必讀釋義	현재	현재	국한문	교사용	1907.6
근대	初等作文法	원영의	김종정 임원상	국한문		1908.10
근대	大韓文典	유길준	유길준	국한문		1908.10
근대	初等國語語典	김희상	김희상	국한문	초등	1909.3
근대	國語文法	주시경	주시경	국문	초/중등	1910.4
일제	普通學教朝鮮語及漢文讀本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國漢混用文	초등	1915- 1918
일제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國漢混用文	중고등	1913
일제	普通學教朝鮮語讀本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國漢混用文	초등	1923- 1924
일제	新編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순한문(近)	중고등	1924- 1926

53) '제목'만 원문대로 입력함.

일제	女子高等朝鮮語讀本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國漢混用文	중고등	1926-1928
일제	中等朝鮮語作文	朝漢文教員會	이광중(강우)	國漢混用文	중고등	1928
일제	中等教科朝鮮語文典	朝鮮語研究會	이원응	國漢混用文	중고등	1929
일제	조선어독본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國漢混用文	초등	1930-1935
일제	中等教育朝鮮語及漢文讀本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순한문(近)	중고등	1933-1937
일제	中等學校朝鮮語文典	심이린	朝鮮語研究會	國漢混用文	중고등	1936
일제	初等朝鮮語讀本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순한글	초등	1939

<국어교과서 목록Ⅱ : 미군정기-정부>

시기	서명	편찬자	발행자	사용 문자	학교급	발행 년도
군정	한글첫걸음	조선어학회	군정청학무국	국문	초/중등	1945.11
군정	초등국어교본	조선어학회	군정청학무국	국문	초등	1945.12
군정	중등국어교본	조선어학회	군정청학무국	국문	중/고등	1946.9
군정	초등국어	군정청 편수국	군정청학무국	국문	초등	1947.2
군정	한글문예독본	정열모	신흥국어연구회	순국문	중등	1946.2
군정	한글교수지침 (一집)(二집)	조선어학회	군정청학무국	국문+ 한문/국문	초/중등	1945.12 -1946.1
군정	중등국어독본	정태진 김원표	한글사	국문	중등	1946.10
군정	국문독본	김호규	조선아동문 보급학회	국문+ 한문	초등	1946.5
군정	現代國文學精蘊★	이하윤	중앙출판문화 협회	국문+ 한문	중등	1946.9
군정	歷代朝鮮文學精華 (上/下)	이희승	박문출판사	국문+ 한문	중등	1947.7
군정	가려뽑은 옛글★	장지영	정음사	국문+ 한문	전문대	1947.8
군정	소학문예한글독본	정인승	조선어학회	국문	초등	1947.4
군정	高級國語	정학모 손낙범	서울사대 국문학회	국+ 한문	대학용	1947.8
군정	국문신선	신영철	소양학술연구회	국문	중등	1948.1
군정	新國文讀本	박병연	학생사	국문+ 한문	중/고등	1946.10
군정	신편고등국문독본★	정열모	동방문화사	국문	대학용	1947.9
군정	작문독본	윤성용	동지사	국문	초등	1946.9
군정	새중등작문교본	윤태영	삼중당	국문	중/고등	1948.1
군정	중등조선말본	최현배	정음사	국문	중등	1946.

군정	신편고등국문법	정열모	한글문화사	국문	고등	1946.10
군정	表解式國語文法	유재현	국학사	국문+한문	고등	1947.7
군정	쉬운조선말본	박창해	계몽사		고등	1946.11
군정	한글통일朝鮮語文法	신태지	삼문사	국문+한문	고등	1945.9
군정	중학국문법	김근수	문교사	국문+한문	중등	1947.8
군정	중등국어1(남자)	이극로 정인승	정음사	국문	중등	1948.3
군정	중등국어1	문교부	문교부	국문	중등	1946.5
군정	고등국어	김근수	박진규	국문+한문	중등	1948.3
정부	現代文章新講★	박태윤	교문사	국한혼용체	고등	1948.9
정부	中等文範★	박태원	서울·정음사	국문 ¹⁾	중등	미상?
정부	文學讀本★	방중현 김현규	서울·조문사	국문	중등	1950?
정부	한글문예독본★	정열모	신흥국어 연구회	국문	중등	미상?
정부	時調讀本★	김종식	교학사	한주국중체	중등	1947.4
정부	教授新論★	권혁풍	문화당	한주국중체	교사용	1948.2
정부	朝鮮雅文經緯★	권덕규	광문사장판	한주국중체	중등	1923
정부	최신 국어교재의 연구 -신생국어독본-★	김사업 최영조	합진출판사	한주국중체	교사용	년도 불명
정부	신정문학독본	방중현 김형규	조문사	국문	고등	1949.8
정부	古語讀本	정태진	한글사	국문+한문		1947.3
정부	한글독본	정인승	서울·정음사	국문		미상?
정부	초등국어 (바둑이와 철수)	문교부	문교부	순한글	초등	1948.10 -49.12
정부	초등글짓기	계몽사 편집부	계몽사	순한글	초등	1949.9
정부	중등국어	이병기	금동도서 주식회사	국문+한문	중등	1948.9
정부	신편중등국어	김병제	김병제	한글	중등	1948.10
정부	중등국어	이병기	이병기	한글	중등	1949.9
정부	중등국어[종류1](6권)	문교부	문교부	한글	중등	1948.1- 50.4
정부	중등국어[종류2](6권)	문교부	문교부	한글	중등	1953
정부	고등국어(3권)	문교부	문교부	한글	고등	1953
정부	국어(12권)	문교부	문교부	순한글	초등	1952- 1954
정부	중등국어(6권은ㄹ라)★	문교부	문교부	순한글	중등	1951-53
정부	고등국어(6권은ㄹ라)★	문교부	문교부	순한글	고등	1951-53
정부	고등국어자습서★	문교부	문교부	국문	고등	1954.4

<초록>

해방 직후, 국어에 대한 인식 및 교과 형성 과정 연구

김 혜 정

이 연구는 해방 이후 국어 및 한글에 대한 인식 및 교과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해방 직후 ‘국어’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국어에 대한 자각(awareness) 측면과 국어 교과 형성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그 이전의 국어 인식과 비교하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교수요목이나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해방을 맞이한 이후,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국어과 교육 과정을 설계하거나 국어 교재를 제작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금세기 들어 서구의 문화와 교육 과정 이론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국어 교육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 교재에 잘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나, 그 내용이나 주제는 상당히 근대적이고 체계적인 편이었다. 한편 ‘독본’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출간되었다는 점 역시 언급해 둘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핵심어】 교육과정, 국어교육, ‘국어’에 대한 인식, 국어교재, 독본

<Abstract>

After Independence, Consciousness of ‘Korean’ and Process of the Curriculum–Building in Korean education

Kim, Hye-jung

This paper aims to inquire, after independence, consciousness of ‘Hangul’ and process of the curriculum-building in Korean education. After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we began to recognize ‘what we are, what we our own have’. So it influence that we make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text-book.

We introduce western culture and curriculum-theory into this country. it was the effects of progressive education on Korean Educational Policy. At the times, ‘Korean-education’ curriculum is not well reflected on ‘Korean text-book’, but its subject matter and theme are modern and systematic. And it is worth mentioning that a new genre of ‘Dokbon’ is published.

【key words】 curriculum,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sciousness of ‘Korean language & Hangeul’, Korean text-book, Dokbon